

#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박차

육성위원회 회의·토론회

차별화 전략 마련 등 논의

“해조류 스마트 팩토리 유치”

완도군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해조류 바이오스마트 팩토리 등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완도군은 이를 위해 최근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제3회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회의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남바이오진흥원 등 해양바이오 관련 전문가,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육성위원회는 이날 ‘중부·동해·남해권 등 거점별 해양바이오산업 추진 현황’과 ‘해조류 바이오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회를 진행했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는 고기능성 해조류의 계절적 생산 한계를 극복하고 바이오 원료를 표준화할 수 있는 육상 생산·가공설비를 구축해 기업체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완도군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완도군은 지난28일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신우철 군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회의와 토론회를 가졌다. <완도군 제공>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개발부장은 “완도군은 해조류산업의 입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 기업이 사업 수행 주체로 참여하는 민간·정부 융합형 사업 모델을 통해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선희 한서대학교 교수는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 “산업화 가능성 있는 해조류 후보군을 선정해 표준 물질을 생산하는 전략도 필

요하다”며 “식약처 고시 원료와 개별 인증형 원료가 아니더라도 허귀 질환에 효과가 있다면 의약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육성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민간 융합형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며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를 반드시 유치해 해양바이오 산업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목포시 내년 정부예산안 목포역 개축 등 77건 6273억원 반영

국회 심의 과정 추가 확보 총력

목포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목포역 개축과 철도시설 재배치 등 77건 6273억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40억원) ▲목포역 노후 역사 시설 개선사업(13억원)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2692억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183억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947억원) ▲친환경전차 시범평가 실증기술 개발

(81억원) ▲목포 자원회수소(소각)시설 설치사업(135억원) 등이다.

특히 목포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목포역 개축 및 철도시설의 재배치 사업비가 반영돼 현대화된 새로운 목포역사 환경조성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잔여사업비 5624억원을 모두 확보해 준공을 앞당기려 노력했으나 정부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2692억원이 반영됐다. 시는 잔여사업비 2932억원에 대해서는 2025년 정부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목포시는 현안사업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 ‘누구나 무료 군내버스’

영암군 이달부터 전면 시행

영암군이 9월부터 영암군내버스를 나이와 성별·지역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무료버스’를 전면 시행한다.

평소 교통카드 발급과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어르신들도 교통카드 없이 편하게 군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영암군민 이동권 확대, 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부르면 달려가는’ 콜버스 도입에 이은 영암군의 두 번째 대중교통 혁신이다.

영암군내버스 무료 정책은 삼호읍에서 운영되고 있는 콜버스를 포함해 71개 노선 35대 군내버



우승희 영암군수 등이 9월부터 ‘누구나 무료버스’ 전면 시행을 확정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 전체에서 실시된다.

다만 목포시내버스, 해남군내버스 등 가까운 시·군버스와 고속버스는 이번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이 편하고 영암을

찾은 관광객들도 기본종계 이용할 수 있는 영암군의 대중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면서 “BIS 재규축, 브랜드화 등 다른 대중교통 정책들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 신안군 아이돌봄 인력 양성 교육 성료

교육생 9명 40시간 교육 수료

신안군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신안군가족센터는 저출산 문제와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추진한 아이돌봄 인력 양성 교육을 최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안군 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액 군비가 지원되는 이번 아이돌봄 인력 양성 교육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총 9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로 40시간의 교육과정(이론 36시간, 실습 4시간)을 이수하고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즉시 아이돌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결혼이주여성 3명이 포함되어 있어 신안군 지역의 아이돌봄 사업 활성화에 기여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국 출신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 아이와 관련된 요청 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응대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된 수료생들은 부모의 맞벌이, 장기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안군 가족센터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문화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가정에서도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돌봄이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이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 사회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군가족센터는 “아이돌봄이 필요한 모든 가정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으로 건전한 아동 양육 돌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여름시티투어 참가자들이 해남 한 막걸리 주조장을 방문해 막걸리를 시음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 해남시티투어버스 타고 미식여행 떠나자

이달부터 가을투어 노선 변경

“가을 해남 오일장으로 미식여행 떠나자.”

해남군은 해남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해남 시티투어버스가 9월부터 가을 투어로 노선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첫 운행에 이어간 해남시티투어버스는 광주 정기노선과 수도권 및 광주에서 출발하는 기획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운영된 여름시티투어는 여름철 주요 관광지 및 고구마빵 만들기, 막걸리 주조장 방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된 가운데, 매회 매진행렬이 이어지며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 8월 말 마무리되었다.

9월부터는 해남의 가을을 경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투어 코스가 정해졌다.

정기노선은 해남의 대표 5일시장인 남창시장을 연계해 2일과 7일 장날에 맞춰 출발하고, 전

어와 삼치 등 해남 가을 제철요리를 즐기는 미식 여행 코스는 매주 일요일 운영된다.

또 명량대첩축제, 해남미남축제 등 하반기 해남 축제를 연계한 상품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노선에는 해남군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해 해남의 역사, 문화, 관광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투어를 즐길 수 있어 더욱 즐겁고 흥미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해남시티투어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스한바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자형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해남 시티투어버스는 편하고, 가볍게 해남을 방문할 수 있고 다양한 매력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가을 코스로 더욱 다채롭게 구성해 해남을 찾는 여행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